

## 노동의 재분배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노동과 안식
- III. 변질된 개신교 노동 윤리: 노동의 왜곡과 인간 소외
- IV. 노동의 가치와 의미의 회복: 여성신학적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09>

---

• ABSTRACT •

---

An Inquiry into labor from a Feminist Theological Perspective:  
Regarding the Issue of Basic Income

Prof. Chung, Mee-hyun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work and labor from a feminist theological perspective. In addition, it articulates the relevance of basic income in improving the evaluation of work and promoting equality. In this neo-liberal economic system of our contemporary world, human beings become unstable in an undesirable labor system, resulting in a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Moreover, the distribution of output through labor is biased, intensify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and accelerating inequality. The introduction of this basic income cannot solve social inequality at once; however, such an experimental approach to feminist economics can make us examine and evaluate our labor as a whole, reconstruct the value and meaning of labor, satisfy the need for recognition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distribution, and contribute to restoring the essential meaning of work and labor.

**Key words:** Basic income, Care, Feminism, Labor, (Un)paid Work,  
Dorothee Sölle

---

## I.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일로 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분담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은 그러한 노동의 강도에 비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 그 노동 자체와 대가가 쉽게 계량화 혹은 가치화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 혹은 보상되지 못해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어느 광고의 한 문구처럼 그 흔한 스펙 쌓기에 한 줄을 더하는 경력도 되지 못한다.

여성들의 일은 전통적으로 공적 영역에서나 사적 영역에서 임금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남성들의 노동만이 그러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여성 노동은 그 전문성을 의심 받기 쉽고, 여성 기술 인력은 여전히 숫자적으로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여성은 단순노동이나 돌봄 노동의 현장으로만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여성의 일은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식되고 재교육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여성의 일은 임금 노동으로의 전환보다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자원봉사 혹은 서비스의 차원으로만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100세 시대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경향으로 볼 때 어떻게 노령인구에게 삶의 보람을 갖게 하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능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중요한데, 그 한 영역이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1) 돌봄 노동에서의 여성 편중화 현상과 그 평가 절하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사한데 한 일례로 일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다음의 논문에서 알 수 있다. Cf. Junko Yamashita, "The Impact of Basic Income on the Gendered Division of Paid Care Work," *Basic Income in Japan. Prospects for a Radical Idea in a Transforming Welfare State* ed. by Yannick Vanderborght & Toru Yamamori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14), 117-123.

자원봉사이다. 그러나 흔히 자원봉사의 체제에서도 성차별의 문제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권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명예의 상징이 되는 조직의 최고 의결기구나 상부구조에서의 자원봉사는 남성들의 자리와 일로 여겨져서 남성들이 숫자적으로 우세한 반면에 의결권은 전혀 없는 형태의 일들이나 물리적인 단순노동과 직결된 자원봉사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력 여성인력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하여 그 잠재 능력이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노동에 대한 남녀 임금격차도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금전적 가치만이 부각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임금노동의 중요성만이 강조되기 쉽고,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노동의 불평등성과 성별 격차, 임금격차 등의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급속한 유연화와 최근의 경제, 사회적 위기는 사람들을 불안정한 직업들로 전전하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기존의 노동문제에 덧붙여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과학혁명의 시기에는 이전의 산업혁명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량 실업의 위기도 예측가능하다. 노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에 영혼 없는 기술적 진보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 지수를 높여주며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고 불평등과 불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윤리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재 고찰과 아울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용적이며 대안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대표적인 한 방법이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과는 달리 노동 없이 일

정 수준의 삶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건없이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정신이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정의로운 노동 구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합의이고 사회적 수단이다.<sup>2)</sup>

인간의 노동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실현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으나 타락한 인간의 노동은 그 가치를 상실하고 노동의 현실은 불합리한 노동체제 안에서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에 의한 인간의 소외현상은 근대 기술혁명이후 가속화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도로테 쉴레(Dorothee Steffensky-Sölle 1929-2003)의 여성 신학적 함의에 비추어 성찰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의 일자리 상실과 기계와의 협업이 불가피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고 공정하며 보다 효율적인 노동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안적 방안으로 부각되는 기본소득 논의의 살펴보고 노동의 재분배와 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sup>3)</sup>

2)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한 논문으로는 다음의 글을 참조: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 윤리적 평가,” 『신학사상』 제150집, 가을호 (2010), 177-215; 인공지능과 기계화의 전면적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준비의 한 방법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박호철, “신자유주의의 기독교적 한 대안: 수정된 기본소득제도,” 『신학논단』 제 83집(2016), 121-154; 박호철,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귀환: 인공지능과 노동, 그리고 기본 소득,” 『신학사상』 제 181집(2018), 109-140.

3) 기본소득논의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책으로는 다음의 책을 참고: Malcolm Torry, *Citizen's basic income: a Christian social policy* (London: Darton, Longman & Todd, 2016).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서 신약 성서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본소득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쌓아 올린 선한 업적 여부를 떠나서 모두에게 임하는 것(마 5:45);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금전적 가치보다는 현존하는 재화의 공동분배 방법을 모색하는 것(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삶을 위하여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를 배려하는 것 (마 20:1-16).

## II. 노동과 안식

태초에 하나님의 노동이 있었다.(창 1:1-31)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다. 하나님은 노동과 쉼의 원리와 모범을 보여 주님과 아울러 그 경계를 일러 주심으로 노동과 휴식의 탄력성을 회복하도록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노동의 규범과 리듬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의미이다. (출 20: 8-11; 신 5:12-15) 하나님의 창조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덧입혀진 억압의 굴레를 벗게 하신 해방자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과 맞물리며 이것이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이다. 더불어서 이러한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과 나와 의 수직적인 관계성 안에만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수평적 관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는 온전한 인격체와 온전한 사회성을 회복하는 날이다.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 1933-)은 『안식일은 저항이다』<sup>4)</sup>라는 그의 책에서 일주일 내내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소유하는 욕망 속에 소비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상대로, 불안, 강박, 배타주의,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의 힘”으로서의 안식을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쉼이 없이 살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고,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성과 생산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4) 월터 브루그만/박규태 옮김, 『안식일은 저항이다』 (서울: 복 있는 사람, 2015).

태초에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의 노동은 죄악의 결과로써 인간에게 부과된 형벌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되었고, 노동의 주체인 그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게 되었다.<sup>5)</sup>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살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창의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노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스스로를 상실하는 소외의 현상까지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집트 제국 파라오의 경제 질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착취 구조 안에서 부와 번영을 과시하려던 불의한 체제였다.<sup>6)</sup> 제국주의 체제 유지와 소수의 지배자들을 위하여 다수가 희생되었고 이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부당한 체제에 얽매어서 노역을 감당해야 했다. 이와 같은 불의한 구조에 의해 산출된 노동의 결과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유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집트는 노예들의 무한노동체제와 착취 경제에 의존해 통치자들의 탐욕과 욕망, 우상과 mammon을 섬기게 하는 유혹이 자리한 공간이었다. 더 많은 자본과 권력을 소유하는 것을 향유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파라오 시스템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고된 노동에 내몰리고 지배자들의 탐욕과 욕망을 충족시키고 쉽 없이 생산과 건설현장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노예들의 삶은 약탈과 착취라는 mammon 경제 속에서 씬을 상실하게 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불의에 저항하면서 파라오의 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온전성과 거룩함을 훼손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향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윤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제6권, 제1호(2012.04), 69-95; 김방룡, “노동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사회윤리』, 제9집(2005), 113-145.

6) 윌터 브루그만/박규태 옮김, 위의 책, 38-39, 48-51.

이것은 이집트 지배자들의 탐욕과 욕망에 대한 경고이며 생산과 소유가 아니라 사랑과 사귄이 삶을 규정하게 하는 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라오의 불공정한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이다.

안식일 계명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 혼자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 아니다. 더 놀라운 차원이 말해지고 있다. 딸, 아들, 여종, 남종, 짐승, 나그네로 표현된 전 사회적 계층이 포괄적으로 이 계명에 포함된다. 안식은 어느 특수계층이나 어느 특수 인종에게만 국한되는 혜택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외국인인 나그네들 까지도 이 계명의 내용에 포함되고 배려된다. 성별, 인종,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두가 평등하게 안식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이다. (출 20:10-11) 그리고 이 계명의 범위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언급됨으로써 온 피조물의 안식을 추구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 복음적 메시지는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며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된다.<sup>7)</sup>

우리에게는 노동이 소중한 것만큼 숨과 쉬도 중요하다. 노동의 재 분배는 쉬의 재분배와 맞물린다. 나 만 쉬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평등하게 같이 쉬어야 함을 안식일 계명은 말해주고 있으며, 공평한 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의에 저항하도록 촉구한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이 필요한 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주 52시간 노동을 일괄적이며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점진적 도입이 시도되어야 함과 동시에 노동 효율적 강도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7) 또한 이 안식일계명은 구약성서에서 안식년과 희년의 사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사상은 모두 억압된 인간을 풀어주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훼손된 땅과 자연을 포함한 온 피조물의 본래성을 찾도록 촉구한다.



들어 직장 여성들의 가사, 육아와 직업의 이중, 삼중적 책임과 부담에서 이 여성들의 일이 분담되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적절한 탁아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구조적 차원에서 노동과 휴식이 공평하게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 유연제를 통하여 남성의(육아, 노인, 환자를 포함한) 돌봄 노동에의 참여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도입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 제도적인 장치가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III. 변질된 개신교 노동 윤리: 노동의 왜곡과 인간 소외

중세기적 교회의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근대를 향한 개혁의 과정에서 교회는 관조적 삶의 가치 (*vita contemplativa*)뿐 아니라, 능동적 삶의 가치 (*vita activa*)를 새롭게 보아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개신교의 노동윤리는 노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명상의 가치보다는 행위와 노동의 비중이 더 강화되었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한쪽으로는 쓸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명상과 노동의 균형이 깨져 버렸다.

노동은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재화적 가치로만 환산되어 평가되었고 노동은 곧 임금노동으로 축소되어 이해되었다. 그래서 개신교의 노동윤리 강조 현상은 노동의 존엄을 부각시킬 수 있었으나 임금노동만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개신교 노동윤리는 노동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미화 하면서<sup>9)</sup> 불합리한 체제에 저항하지 못한 채 그 굴레에

8) 월터 브루그만/박규태 옮김, 위의 책, 40-41.

9) 개신교의 소명에 대한 강조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그 부정적 측면도 아울러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오단이, 서봉균,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와 적용,”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편, 『종교개혁과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 (서울: 나눔사, 2018), 212-213.

같은 무의미한 노동마저도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불의한 체제에 대한 불복종, 반항과 비판을 부정적으로 격하시켜 버린 것이다. 마침내 인간은 노동하는 과정에서 생산품과 생산력으로만 평가되고,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기에 이르고 개신교의 노동 윤리는 결국 임금 노동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버렸으며<sup>10)</sup> 빈부간의 격차는 가속화되었다.<sup>11)</sup> 노동의 본질적 의미는 왜곡되었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살후 3:10)하였으나 일하지 않고도 자본의 증식으로 더 많은 부를 손쉽게 빠르게 향유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씬 없이 일을 하여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축적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소유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체제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노동의 왜곡 현상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하여 개신교 경제 윤리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인간이 스스로 생산하는 생산물과 제도들에 의하여 지배받고 자신은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을 노동에서의 소외라고 볼 수 있다. 즉 소외란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이 강제적 생산과 노동의 기계화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인 육체노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한다고 하여 도입된 기술문명에 의하여 인간의 삶은 와해되며 인간이 아닌 기계

10) 도로테 쾰레/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2), 111-114.

11) 니카라과의 신부인 에르네스토 카르테날은 노동하지 않는 부계지주들이 땅과 집과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모두 차지하는 문제성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신은 신밭은 한 노동자가 만들었다. 옷은 한 다른 노동자가 만들었다. 도시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도로와 다리들... 노동자들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승하고 창조에 동참하여 함께 일한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자들..., 신밭, 의복, 음식을 가지고 세상을 유람하면서 일하지 않고 씨 뿌리지 않으며 도대체 아무 것도 생산해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땅의 주인이어야 한다.”위의 책, 66.

가 주체가 되어 또 다른 형태의 예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임금노동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노동은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로만 환산되는 수단인 것이다.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고, 금전적으로 환산 될 수 있는 것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1차 산업 혁명 이후 여성들이 육체적 단순 노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의 노동도 금전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었으나 이 시대 노동은 계층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류층의 부유한 여성들은 이러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와 같은 자선사업이나 무급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귀하게 생각하였다. 육체적 노동이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 노동을 하는 것은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에 비해 하층 계급의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육체 노동의 이중, 삼중의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다.<sup>12)</sup> 산업혁명과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노동의 계층화, 업무 분담의 젠더 불평등, 임금 차별의 현상 또한 복합적으로 가속화 되었다.

인간이 창조를 찬미할 수 있는 것은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창조에 참여하는 인간은 창조를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과 노동을 통해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sup>13)</sup> 노동의 불평등한 분담, 성차별적인 역할 규정과 체제의 부당성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창조적 힘을 이어받은 지속적인 창의력과 효율적인 생산성을 남성 중심적인 노동과 그 시스템에 의해 왜곡

12) 크리스티네 버티거 스트람/정미현 옮김, “1900년 경 여성문제에 대한 개혁교회의 논쟁: 교회사적 고찰을 통해,” 『한국여성신학』 제28권 12월호(1996), 33-41.

13) 도로테 쾰레/박계순 옮김, 『사랑과 노동』, 12.

시켜 버리는 것이다.

자본 만능주의의 노동 현장에서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연대와 협력은 상실된다. 또한 노동자들 사이에 교류가 없고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인간은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할 수 없다. 인간이 생산의 목표와 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면 노동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창의적 생산이 아니라, 인간을 짓누르는 멍에로 작동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손은 노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거나 의미 있는 것을 산출할 수 없는 손이며, 창조적인 생산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일그러진 작업을 하는 것일 뿐이다.<sup>14)</sup> 곧 노동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만 가치를 인정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품의 사용가치는 금전화 될 수 있는 교환가치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그렇게 될 때 사물 자체가 주는 기쁨과 만족, 그 고유한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노동이 물화(reification)되고, 비인간화됨으로써 인간자신도 더욱 비인간화되어지는 것이다. 생산의 목적은 인간의 욕구와 만족감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창출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다.<sup>15)</sup>

고객의 돈에 의존해야 하는 창녀처럼 노동자는 자신을 시장에 내 놓아 임금 노예제도가 성립되고 유지된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그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조직의 위계구조에 종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종관계에 의하여 규정된 노동으로 인하여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소외의 현상은 가중된다. 주인은 모든 생산력과 자본을 지배하고 노동자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단순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기 때

14) 위의 책, 97-99.

15) 위의 책, 103-104.

문이다.<sup>16)</sup>

또한 인간이 노동에서 소외된 것은 노동자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인간의 생체리듬이 아니라 짜여진 노동의 시간 리듬에 인간이 기계와 같이 맞추어야 한다는 뜻이다.<sup>17)</sup>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들 아래서는 창조적으로 노동하고 창조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위대한 우주적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신 성육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평등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구하고, 창조적으로 노동하고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의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땅을 갱신하고, 인간과 자연의 연속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며, 창의적인 노동을 방해하고, 인간의 주체적 삶을 불가능하게 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세력에 지속적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다.<sup>18)</sup>

#### IV. 노동의 가치와 의미의 회복: 여성신학적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

도로테 윌레는 사람들이 흔히 죽음 이전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선한 창조에 참여하는 삶을 믿기 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에 착안하여 창조와 노동과 사랑의 관계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인간은 노동하고 사랑함으로써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며 하나님과의 결합성을 의식

16) 위의 책, 108-109.

17) 위의 책, 96-97.

18) 위의 책, 268.

하여 찬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은 적대적인 세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노동은 곧 삶이다. 즉 인간됨, 다시 말해서 피조적 존재의 의미의 표현이다.”<sup>19)</sup>

도로테 쾰레가 정의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적으로 좋은 노동이란<sup>20)</sup> 자기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성 안에서 좋은 노동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더욱 친밀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노동은 책임적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나의 노동이 어떠한 일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적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노동은 생계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기본소득이 근원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차별된 임금으로 여성과 남성사이에 불공정한 임금격차가 있고, 여러 차원의 젠더 불평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젠더정의의 측면에서 비교적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한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과 남성사이에는 지역, 일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대략 10%에서 20%정도 임금의 격차가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사이에서 남녀 사이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알려져 있다.<sup>21)</sup>

기본소득은 젠더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그 도입 배경과 목적을 살펴

19) 도로테 쾰레/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140.

20) 그 반대로 나쁜 노동이란 노동을 인간을 종속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이 자유케 한다(Arbeit macht frei)”는 구호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독일의 다카우, 작센하우젠과 체코 테레지엔 슈타트등 나치 강제 수용소와 집단 학살의 현장 출입구에 쓰여진 문귀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란 노동의 긍정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노동에 종속시킨 억압과 폭력의 기체이며 수단이다.

2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2018.7.17. 방문)

봄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행위로서의 노동의 본래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자아실현과 창조의 동역자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본소득 개념은 젠더 간 노동의 형평성을 추구하며 성역할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한다. 더 나아가 나이나 국적 등의 조건에도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성별을 넘어 보편적 인권의 차원까지 다루면서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술개발로 대체되는 노동을 통하여 기계와 공생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기본소득은 성별에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액수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성별 간 격차를 최소화한 상대화 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sup>22)</sup> 성인지 예산의 도입에서<sup>23)</sup> 수입과 지출에 참여하는 성비를 투명하게 제시하며 지출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공의롭고 효율적 지출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성별 차등을 시정하며 비교적 자유롭고 조건 없는 분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 노동에 대한 성별간 임금 격차의 문제를 가시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가사노동과 각 가정에서 어린이,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가시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기본소득의 정신을 확대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sup>24)</sup> 기본소득의 정신

22) 한스 루/정미현 옮김,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유토피아인가 변혁의 시대를 위한 기회인가?』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27.

23) 정미현, “성인지 예산법 도입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제언,”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2011), 229-252.

24)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feministische und postpatriarchale Perspektiven*, hrsg. von Roland Blaschke, Ina Praetorius, Antje Schrupp, (Sulzbach/Taunus: Ulrike Helmer Verlag, 2016), 41-44.

은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처럼 전통적으로 임금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소위 그림자 노동에 대하여 임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로 무보수 노동으로 당연히 되었던 이러한 노동의 차원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은 여성에게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능력과 관심에 따라 이 노동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주체를 전통에 따라 여성이라고 한정짓지 않을 수 있게 하며,<sup>25)</sup> 여성에게도 종속성이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자리나 노동의 성별 격차의 현상으로 내몰릴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겠다. 즉 기본소득 개념은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차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성별에 따른 일의 불공정 분배와 역할의 위계질서화, 노동의 착취 구조를 연장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여성주의적 경제논의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된 내용이다.<sup>26)</sup> 경제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손실만을 최우선시 하는 경제 논리로 인간의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sup>27)</sup> 기본소득 정신의 확대와 일과

25) Ursula Dulling, et.al, *Wirtschaft anders denken. Handbuch Feministische Wirtschaftsalphabetisierung* (Wien: Eigenverlag, 2010), 145-149.

26) Ina Praetorius, "Speaking of God As a Woman Since the Enlightenment,"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 15.1(2006), 84-97, 14; Ina Praetorius, "Thinking of the World as a Household: Questioning Myself about a Philosophical Experiment,"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 17.1(2008), pp. 118-127; Ina Praetorius, "Re-thinking economy: Beyond the androcentric order,"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6. 17(1998), 89-102.

27)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feministische und postpatriarchale Perspektiven*, hrsg. von Roland Blaschke, Ina Praetorius, Antje Schrupp, (Sulzbach/Taunus: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여성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개발시키는 노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을 수 있게 되며 남성도 외벌이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의 다른 차원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기본소득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도 임금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받게 할 것이며 노동의 본래적 창의성을 회복하게 하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본소득의 도입은 여성인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보겠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노동 전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도록 우리의 노동을 다각도로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모두에게 분배되는 기본적 수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면<sup>28)</sup> 인간은 원하지 않는 노동의 종속구조에 그대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동은 단순히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발전을 가져오고, 노동의 성과를 가시화하며 얼굴 있는 노동을 함으로써 수동적 노동자가 아니라 창의적 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곧 노동자가 생산물에 대한 관계성을 갖게 됨으로써 그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산의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다.

도로테 쉴레는 노동이 노동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쁨하는 가장 바람직한 예를 예술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 좋은 노동은 예술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술 활동이 지니고 있는

Ulrike Helmer Verlag, 2016), 39.

28) 부의 재분배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실현 가능성 있는 재원마련의 방안은 이미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한스 루/정미현 옮김,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유토피아인가 변혁의 시대를 위한 기회인가?』, 51-55; 김성호,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연구: 기독교 사회 복지 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8집(2017), 134-135.

창조적 능력의 활용은 정신을 자극하고 사고를 즐겁게 하는데, 좋은 노동 또한 그러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sup>29)</sup>

궁극적으로 노동은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의무감에서 무의미하고 기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자아의 모습을 회복하고 즐겁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sup>30)</sup> 종말론적 비전을 갖고 볼 때 노동은 무의미한 억압의 기제가 아니라 창조적 생산에 참여하는 기쁨의 과정이다. 구약 예언서 전통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노동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고 감사함으로 모두가 그 수확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모스 9:13-15)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창조적 노동의 회복이 일정부분 가능하게 된다면 인간은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일하고 취급받다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와 기쁨을 빼앗기고 남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sup>31)</sup>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혜택도 정당하게 받는 구조적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노동조건 전반적 개선을 위해서는 분배나 인정 욕구 인가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서 생산력 향상에 의한 소득 증대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 내포하는 취약성을 보완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탄력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기계적인 최저 임금제의 도입이 아니라 통합 임금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노동 유연제의 도입과 노동

29) 도로테 쾰레/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144.

30) 위의 책, 113.

31) 육체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는 우리 문화와 전통에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123.

강도의 조율 등도 필요하다.<sup>32)</sup>

요약하면 기본소득은 포용적 사회구조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며 그것은 복지혜택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는 무/보수 노동과 그림자 노동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며 노동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며 노동과 삶의 재분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이제 비정규직, 청년 실업, 집단 정리 해고 등의 화두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자본수익이 근로소득을 능가하는 불의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모두가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땀 흘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체계 구축의 자그마한 수단으로써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이 논의는 분배 개선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노동 효율성과 집약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과 같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V. 나가는 말

중세기 여성신비주의자이며 가톨릭교회의 갱신에 힘썼던 스페인 아빌라의 테레사 (Saint Teresa of Avila, 1515-1582)가 남겼던 말처럼 하나님

32) 건설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국미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파주: 푸른사상, 2018).

33) Sakura Furukubo, "Basic Income and Unpaid Care Work in Japan," *Basic Income in Japan. Prospects for a Radical Idea in a Transforming Welfare State* ed. by Yannick Vanderborght & Toru Yamamori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14), 133-139;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4호(2013), 105-115.

34) 기본소득은 특별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호,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연구: 미래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1집(2015), 143.

은 우리의 몸과 손과 발 이외에 다른 지체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감능력을 갖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후미진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로 걸어 다니며 좋은 일을 하고,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축복하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적 노동에 동참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노동은 기계에게 맡김으로써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는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과 휴식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 몸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증대하는 창의적이고 즐거운 작업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은 정부가 규제하는 일괄적인 노동시간 제한이나 최저 임금도입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유연제의 도입과 탄력 있는 최저 임금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형편에 맞는 노동체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효율성과 노동 강도가 고려되지 않는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일괄적 도입이 아니라, 창의적인 노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문화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할당제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유형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사회 제반의 문제들을 단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 수입은 노동에 대한 인식과 접근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일정 부분 삶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논란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접근, 해법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여성의 낙태문제에 대하여 낙태 찬성이나 반대냐의 이항 대립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

를 선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낙태는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적 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장애 여성들에게도 일정 부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 정신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으로써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남성중심의 권력구조의 해체와 재편성에 일조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차원에서 교차적 불평등에 노출된 사람들을 수동적 구제의 대상인 피보호자로 객체화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정치, 경제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주체적 삶을 영위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 윤리적 평가.” 『신학사상』. 제150집, 가을호 (2010), 177-215.
- 곽호철. “신자유주의의 기독교적 한 대안: 수정된 기본소득제도.” 『신학논단』. 제83집(2016), 121-154.
- \_\_\_\_\_.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의 귀환: 인공지능과 노동, 그리고 기본 소득.” 『신학사상』. 제181집 (2018), 109-140.
- 국미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파주: 푸른사상, 2018.
-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4호(2013), 105-141.
- 김방룡. “노동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사회윤리』. 제9집(2005), 113-145.
- 김성호.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연구: 미래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1집(2015), 121-149.
- \_\_\_\_\_.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연구: 기독교 사회 복지 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8집(2017), 113-142.
- 오단이, 서봉균.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와 적용.”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편, 『종교개혁과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 서울: 나눔사, 2018, 200-214.
- 윤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제6권, 제1호(2012.04), 69-95.
- 정미현. “성인지 예산법 도입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제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 사회윤리』. 제 21집(2011), 229-252.
- 네티저 스트람, 크리스티네/정미현 옮김. “1900년 경 여성문제에 대한 개혁교회의 논쟁: 교회사적 고찰을 통해.” 『한국여성신학』. 제 28집 (1996.12), 33-41.
- 배민수. 『그 나라와 한국농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
- 브루그만, 윌터/박규태 옮김. 『안식일은 저항이다』. 서울: 복 있는 사람, 2015.
- 루, 한스/정미현 옮김.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유토피아인가 변혁의 시대를 위한 기회인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쉴레, 도로테/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2.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feministische und postpatriarchale Perspektiven.*  
hrsg. von Roland Blaschke, Ina Praetorius, Antje Schrupp. Sulzbach/  
Taunus: Ulrike Helmer Verlag, 2016.

Dulling, Ursula, et.al. *Wirtschaft anders denken. Handbuch Feministische  
Wirtschaftsalphabetisierung.* Wien: Eigenverlag, 2010.

Furukubo, Sakura. "Basic Income and Unpaid Care Work in Japan." *Basic  
Income in Japan. Prospects for a Radical Idea in a Transforming Welfare  
State.* ed. by Yannick Vanderborght & Toru Yamamori.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14.

Praetorius, Ina. "Speaking of God As a Woman Since the Enlightenment."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 15,1(2006),84-97.

\_\_\_\_\_. "Thinking of the World as a Household: Questioning Myself about a  
Philosophical Experiment."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 17,1(2008), 118 - 127.

\_\_\_\_\_. "Re-thinking economy: Beyond the androcentric order." *Feminist  
Theology: The Journal of the Britain & Ireland School of Feminist  
Theology.* Vol.6, 17(1998): 89-102.

Torry, Malcolm. *Citizen's basic income: a Christian social policy.* London:  
Darton, Longman & Todd, 2016.

Yamashita, Junko. "The Impact of Basic Income on the Gendered Division of  
Paid Care Work." *Basic Income in Japan. Prospects for a Radical Idea in  
a Transforming Welfare State.* ed. by Yannick Vanderborght & Toru  
Yamamori.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14, 117-12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2018.7.17. 방문)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17일

심사개시일: 2018년 11월0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21일

---

 • 국 문 초 록 •
 

---

이 논문은 노동에 대하여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신학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노동과 삶의 재분배 정의를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본소득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속에서 인간은 원하지 않는 노동 체계 속에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려 있으므로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노동을 통한 생산물의 분배는 편중되어 빈부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어 있다. 기본소득이란 노동에 대하여 지불받는 댓가가 아니라, 조건 없이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국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 구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사회적 불평등을 단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이와같은 실험적 시도는 우리의 노동 전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점검하게 하며,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재구성하게 하고, 분배의 정의 뿐 아니라 인정욕구를 채워줄 수 있으며 노동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기본소득, 돌봄, 여성주의, 노동, (무)임금노동, 쉼레

---